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경제적 위기의 상황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모든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와테 카운티에는 3년 동안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100명이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0명이 넘고 있으며 그 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모리오카에는 300명이 넘는 현실이지만 모리오카 교회에서는 1부, 2부 나누어 예배를 드리며 제일 귀중한 어린이 예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저희들의 미국 방문은 5년간 수학한 기독교 상담학을 주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어서 6월에 졸업식을 하고 6월 중순에 사역지로 돌아왔습니다. 기독교 상담학 공부를 하게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먼저 제 자신이 공부한 상담학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작년 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해온 스애 자매가 7월달에 모든 절차를 거쳐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기전에 교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 세례도



물속에서 침례식으로 받았습니다.부족한 저희부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일본 문화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스애 자매가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보살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7월 18일날 이와텐에 있는 몇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 의논하였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깨어 기도하여만 합니다.

일본교회에는 새벽예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성도들을 새벽에 깨우기는 무척 힘이 들지만, 각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한다면 미래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를 통해 부채와 마스크를 준비하여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마즈리라는 축제가 있는데 8월1~3일 동안 있습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전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1) 8월 1일 부터 3일간 있을 일본 축제날에 전도의 기간이 되도록.
- 2) 준비한 전도지를 통해 구원 받을자들이 나오도록.
- 3) 일본교회들이 새벽예배를 시작하도록.
- 4) 스애자매가 구원을 받았으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 5) 구바다 형제와 사야카 자매가 세례를 받을수 있도록.
- 6) 저희 부부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도록.

선교의 지상명령을 따라 부르신곳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선교의 동역자님들과 함께 기도로 교통하는 제임스 린다를 위해 함께 손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일본 모리오카에서 함제임스 린다 드림